

# 尹 “중동 사태, 리스크 선제 관리 안하면 피해는 국민 몫”

##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 관계 부처 철저한 대비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무력 충돌에 대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지 않아서 끝난 타임을 놓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소집해 “이번 중동 사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해 에너지 안보, 공급망 문제 등 국제 사회가 처해 있는 위기에 대한 취약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여러 국가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사안인 만큼 사태의 확대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오늘 모든 관계 부처는 논의되는 사안을 토대로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우리 국민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거나 위협에 빠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경제, 안보적 함의를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지속적으로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민생경제와 국가안보 측면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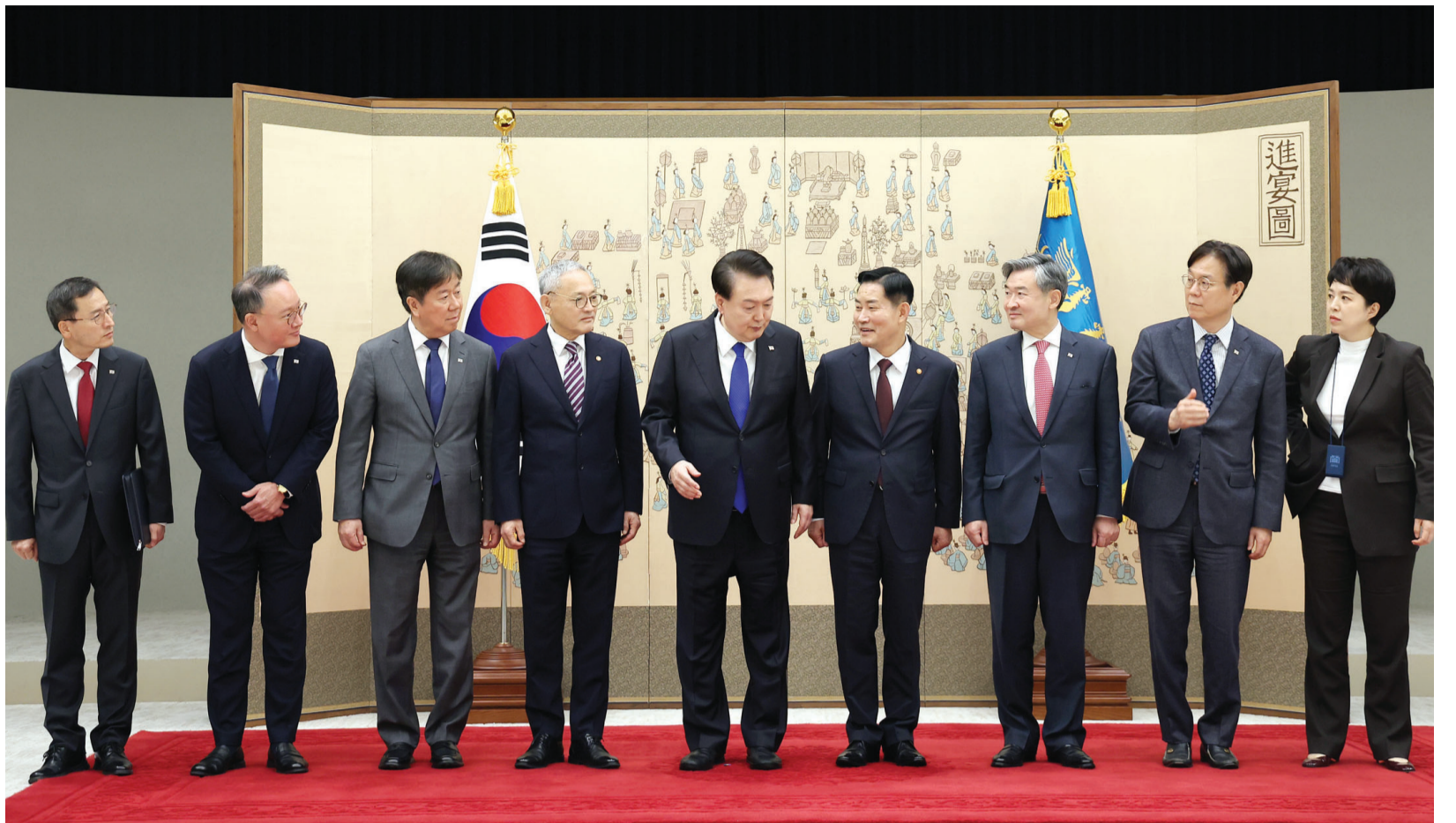
회의에는 박진 외교부·신원식 국방부·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대통령실에서 김대기 비서실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후 장관들과 악수하고, 각각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축하했다.

임명장 수여식에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김은혜 홍보수석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진이 참석했으며 비공개 환담도 진행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동훈 “한국형 제시카법 이달 중 입법예고”

성폭력 범죄자 거주지 제한 법률  
법무부가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입법을 추진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법무부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서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8소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를 제한하는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해왔다”며 “이달 중 국민들께 입법 예고하고 국민들께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가장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우리나라의 제도·환경을 고려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거주 제한 방안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올해 1월 새법안보고회에서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고 했다.

법무부는 당초 이런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을 5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계획보다 늦게 입법 절차를 밟게 됐다. 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 대선 허위보도 의혹 野 보좌관·기자 압수수색

검찰 추가 의혹 포착 강제 수사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뤄진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1일 추가 허위 보도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다.

대선 서울 전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된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이보다 2주 앞서 JTBC에서 보도된 이른바 ‘윤석열 커피’ 기사에 이어 또 다른 보도의 경위 추적이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선 반부패수사1부)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 최모씨의 국회 사무실과 주거지 등 4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언론사 리포어트 사무실과 이를 운영하는 허모 기자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최씨와 허씨가 공모해 대선을 앞둔 지난 해 3월1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 씨를 의도적으로 보좌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한 것으로 의심한다.

당시 허씨는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과 조씨의 사촌형인 이모씨와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확보했다며 그 내용을 보도했다.

허씨는 기사에 “이씨가 ‘김양 부회장이 구속되기 전 조우형이 김 회장의 심부름꾼이었거든요. 솔직히’라고 말하자 최 전 중수부장이 ‘윤석열이 그런 말했다’고 맞장구쳤다. 이어 이씨가 놀란 듯 ‘윤석열이

그런 말 했다? 조우형이 박영수 변호사를 쓴 건 신의 한수였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적었다.

최 전 중수부장이 직접 당시 주임검사였던 윤 대통령을 지휘하는 관계였던 만큼 윤 대통령으로부터 보고받은 수사 내용을 한참 뒤에 부산저축은행 관계자에게 전달해준 것으로 보인다는 게 허씨가 제기한 의혹이었다.

기사에는 해당 대화가 이뤄진 시점이나 장소에 대한 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다.

허씨는 관련 수사가 본격화된 직후인 9월7일 페이스북에서 이 기사를 다시 소개하며 “김만배·신학림 인터뷰가 거짓이면 최재경이 한 이 말은 뭐냐. 이 녹취록은 제가 직접 입수해서 갖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보도된 최 전 중수부장과 이씨의 대화가 사실과 다르다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중수부장은 보도 내용에 대한 연합뉴스 질의에 “보도를 지금 봤다”며 “이씨를 전혀 모른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와 허씨가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서도 유력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대선을 불과 8일 앞두고 이 같은 보도에 나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두 사람을 입건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최씨와 허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 정부 “우리 전문가 日오염수 시설 안전 확인”

“도쿄전력 데이터 특이사항 없어”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현지에 우리 전문가들을 파견해 현장 시설 안전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브리핑에서 전문가 현지 파견 활동 결과를 전했다.

정부에 따르면 우리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현장 사무소를 방문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본부와 화상회의도 해서 1차 방류 이후 설비 점검상 특이사항이 없다고 확인했다.

우리 전문가들은 상류 수조 4곳에서 도장이 부풀어 오른 현상에 대해서도 안전성과 무관함을 재확인하는 한편, IAEA로부터 ‘도쿄전력과는 별개로 상류수조에서 시료를 채취해 삼중농도를 분석한 결과가 도쿄전력의 분석 내용과 유사했다’는 설명도 받았다고 정부는 전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원전 시설을 방문해 오염수 이송 라인의 전기 기기실 등 주요 시설을 시찰하고 2차 방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송 라인의 전기기기실에서 유량계를 직접 관찰해 시간당 18~19㎥ 정도의 오염수가 희석 설비로

흘러가고 있음을 확인했다.

K4 탱크 구역에서는 1차 방류 대상이었던 B 탱크군에 아직 4차로 방류될 오염수가 유입되지 않았음을 전문가들은 확인했다.

정부는 또한 도쿄전력 측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2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실시간 모니터링 결과 오염수 이송 유량과 해수 취수량 모두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3km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9일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한 결과,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벵크렐(Bq) 미만을 기록했다고 원안위는 전했다.

한편 IAEA는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후쿠시마 인근 해역의 해수, 퇴적물, 어류 등 시료를 채취·분석해 방류 이후 해양 환경의 변화와 도쿄전력의 국제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번 채취·분석에는 IAEA 실험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중국, 캐나다 등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다고 정부는 전했다.

또한 한국을 포함한 11개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IAEA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가 23일부터 28일까지 검토 활동을 진행한다. /연합뉴스

10.20 금 → 11.05 일

함평 엑스포공원 및 시가지 일원

나를위한 행복여행 in 함평국화

2023 대한민국 국화대전

2023 CHRYSANTHEMUM FESTIVAL KOREA

주최: 임평군, 주관: 함평축제관광재단  
후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전라남도,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국화동호회